

목마른 연변팀, 대련팀을 제물로 통과한 시즌 첫 승

—‘반가운 안방 역전승’… 반등의 신호탄 쏘나



연변팀이 천금같이 귀중한 승전고를 올렸다. 끈기와 신념으로 만든 극적인 역전승이다. 올 시즌 첫 승까지 기분 좋게 쏘아올리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연변룡정커시안팀 (이하 ‘연변팀’)은 4월 22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5라운드 경기에서 대련곤성팀을 홈으로 불러들여 2골을 내주고 3골로 판을 뒤집으며 3대2 역전승을 거두었다.

눈과 귀가 쏠린 이번 홈장전에서 이기형 감독은 또 한번 4-4-2 전형을 꺼내들었다. 축구협회컵에서 인상깊은 활약을 펼쳤던 구가호가 키퍼 장갑을 끼고 리그 경기에 첫선을 보인 가운데 호재겸, 서계조, 왕봉, 박세호가 수비선을 지켰다. 중원은 김태연, 리룡, 천창걸, 허문광으로 구성했고 포부스와 황진비가 투톱을 이뤄 최전방에 나섰다.

지난 시즌 갑급리그를 누볐던 무세퀴, 코트니, 사빌 등 용병들을 이번 시즌에 대거 영입해 전력을 보강한 대련곤성팀은 이날 이 3명의 용병을 나란히 선발로 출전시키며 역시 4-4-2 전형을 가동했다.

올 시즌 첫 홈장인 데다 무조건 결과를 내야 하는 경기인 만큼 연변팀은 시작부터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상대팀도 만만치 않게 밀어붙였다. 그러더니 경기 4분 만에 연변팀의 오른쪽 측면을 찢은 패스로 파고들며 문전으로 퐁퐁스를 런결했고 연변팀 문전에 침투해있던 대련곤성팀의 20번 진영이 선제골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른 시간에 실점이 나오며 수세에 몰리던 연변팀은 다시 집중력을 발휘하며 공격을 전개했다. 그러다 경기 11분 만에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대련곤성의 문전에서 기회를 엿보며 활발하게 움직이던 포부스가 리룡의 패스를 몸으로 받아 좁은 공간에서 몸을 돌리는 순발력으로 슈팅 공간을 만들었다. 뒤이어 상대 수비수들을 따돌리며 침착하게 날린 슈팅은 상대팀 키퍼도 어쩔 수 없게 골망을 갈랐다.

1대1, 연변팀은 재빨리 상황을 원점으로 돌리며 균형을 맞췄다.

며칠전 축구협회컵에서 준수한 모습으로 눈도장을 찍은 구가호가 17분경에 날썈 몸놀림으로 선방을 펼쳐 골문을 지켜냈다.

경기가 전반 중반을 넘어서며 연변

팀은 조금씩 공 점유율을 높여가는 흐름이었다. 동점골을 뽑는 등 최전방에서 활약을 이어가던 포부스 또한 대련곤성팀의 문전을 수차 취했으며 역전골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38분경에 나온 천창걸의 먼거리 슈팅이 골대를 명중했으나 상대 키퍼가 거둬들이며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뒤이어 40분경에는 구가호가 대련곤성의 용병 코트니가 금지구역 안에서 강력하게 쏘아붙인 슈팅을 또 한번 온몸으로 막아내며 선방을 이어갔다.

전반 막판에 접어들며 두 팀의 신경전이 치열했는바 인츰 44분경에는 황진비가 상대 골문 측면에서 슈팅을 시도하며 추가 시간 2분까지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추가 득점 없이 두 팀은 1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첫번째 동점골을 만든 포부스와 두번째 동점골을 터뜨린 리룡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후반전을 연변팀은 전력 교체 없이 시작했다. 역시 후반전에도 두 팀은 강하게 압박을 가하며 기선제압에 시동을 걸었다.

수비벽을 촘촘하게 세우고 구가호가 폭풍 활약을 펼치며 연변팀은 골문을 사수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 팀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린 경기는 차츰 불꽃이 튀다 못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격돌했다.

균형이 깨진 건 후반 59분이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더니 기회를 먼저 포착한 쪽은 대련곤성, 이번에도 역시 측면에서 문전으로 넘어온 퐁거리 패스를 문전에 침투해있던 무세퀴가 가볍게 연변팀 골문으로 밀어넣으며 재차 앞질러갔다.

시급히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연변팀은 64분경 허문광 대신 리세빈을 투입했다.

그리고 공격의 활로를 찾고자 노력했던 연변팀이 결실을 만들어낸 건 69분경이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태연이 크로스를 올렸고 공은 수비수들의 머리 우를 뜨면서 왼쪽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던 리룡에게 갈갈이 떨어졌다. 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리룡은 로런하게 머리로 공을 밀어넣으며 헤딩골을 완성했다. 동점 헤딩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사기가 오른 연변팀은 맹공을 이어갔고 74분경 동점골에 도움을 기여했던 김태연이 역전골까지 작렬시켰다. 문전에서 나온 상대의 실수를 귀신같이 파고들어 슈팅을 수차 헤딩골을 날린 김태연의 움직임과 집중력은 그야말로 로장의 품격을 보여주는 맹활약이었다. 첫 쏠은 키퍼가 처낼 수 있었다면 김태연이 키퍼가 처낸 공을 재차 헤딩골로 마무리한 추가 골은 키퍼도 손 쓸 새 없이 빈 골문에 꽂혔다.

3대2로 역전에 성공한 연변팀은 85분경 이날 경기의 절대 공신인 김태연을 빼고 음바를 투입하며 교체카드를 활용했다.

후반 추가 시간이 5분 주어져있고 연변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승리의 추가 연변팀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뒤공간을 잠근 연변팀은 더 이상 상대팀에 기회를 내주지 않으면서 최종 3대2 승리를 굳혔다.

승점 3점도를 올 시즌 첫 홈장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연변팀은 4월 26일 심수청년인과 연승 홈경기를 이어간다.

/ 김기해 김파 기자

경기후

‘1 도움 1 골 맹활약’ 김태연
“우리의 스타일대로 하면 득점 기회가 온다고 했다”

4월 22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5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하 ‘연변팀’)은 대련곤성팀을 3대2로 제압하며 시즌 첫 승을 거두었다.

경기를 마친 뒤 있는 공동취재구역 인터뷰에서 동점골에 도움을 기여하고 역전골까지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김태연이 취재를 받았다.

중간 휴식 시간에 감독이 어떤 조정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태연은 “중간 휴식 시간에도 그렇고 이날 경기전에도 그렇고 감독님이 항상 우리 선수들 보고 신심을 가지라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이다.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신심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1대1로 전반전을 마치고 라커룸에서 감독님은 우리의 스타일대로 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주문했



▲ 인터뷰 화면 캡처

다. 그러다 보면 후반전에 무조건 득점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경기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며 승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날 연변팀은 선제골을 내주고 인츰 동점골로 따라붙었는가면 또 한번 역전골이 터졌을 때도 끈기있게 집중력을 발휘하며 재차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거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추가골까지 터뜨려 ‘마귀후장’의 명예를 지켜냈다.

/ 김기해기자

감독초대석

이기형 “선수들 부담 이겨내고 최선 다해 승리했다”



4월 22일 오후, 연변룡정커시안팀은 올 시즌 첫 홈경기에서 대련곤성팀을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첫 승을 이루었다.

경기후 있는 기자회견에서 이기형 감독은 “올 시즌을 시작해 지금까지 승리하지 못하여 선수들도 그렇고 나

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그걸 잘 이겨내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고 또 잘 리듬해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이날 경기를 평가했다. 이어 “오늘 경기를 하기 전에 축구협회컵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잘 발휘하여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기운을 이어받아 오늘 경기도 승리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어느 누가 아닌 한팀이라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홈경기전까지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홈장에 팬들이 많이 찾아와 응원해줘서 승리한 것 같다. 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감사의 마음도 표했다.

/ 김파기자

[오늘의 포토]

신들린 선방으로 가치 증명, 키퍼 구가호 눈도장 황!



연변팀의 ‘후보’ 키퍼였던 구가호가 ‘선발 자격’을 경기력으로 증명했다. 19일에 열린 중국축구협회컵 제 2라운드 경기가 전환점이었다. 후보 선수들이 대거 기용된 이날 경기에서 특히 키퍼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

며 눈도장을 찍었는데 그가 바로 구가호였다. 올 시즌에 연변팀으로 이적한 구가호는 아직 리그 경기를 뒀 적인 없다.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린 구가호는 22일에 있는 시즌 첫 홈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다. 감독의 기대를 엿볼 수 있었고 구가호는 그 믿음에 보답했다. 수차 눈부신 선방을 펼치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 활약과 집중력을 선보이며 팀의 첫 승에 기여했던 것이다.

/ 김기해기자 / 사진 박경남특약기자

[축구협회컵]

연변팀, 챔피언스리그팀과 승부차기 끝에 3라운드 진출, 다음 상대는 슈퍼리그팀

연변룡정커시안팀 (이하 ‘연변팀’)이 축구협회컵 제 3라운드에 진출했다.

19일에 열린 중국축구협회컵 제 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아마추어 리그인 챔피언스리그 (中冠联赛)를 뚫는 심수청상팀과 원정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90분 동안 득점 없이 0대0으로 손잡은 두 팀은 곧바로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9번 키퍼까지 나선 접전 끝에 활짝 웃은 건 연변팀이었다. 결과는 8대7.

올 시즌 첫 홈장전(22일)을 잘 치르기 위해 갈길 바빴던 연변팀은 이날 선발 선수 11명에 후보 선수는 단 4명으로 대명단을 꾸렸다. 명단을 살펴봐도 리그 출전이 적은 후보 선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4-4-2 전형을 가동해 리달이 주장 완장을 착용하고 차책평(U-21)이 중앙수비수 자리를 지켰으며 로용개지와 리금우가 랑 측면 수비수로 나섰다. 중원은 정지우(U-21), 양이해(U-21), 고운봉, 한광민(U-21)으로 구성했고 모치원과 림대준이 투톱으로 최전방에 배치되었다. 키퍼장

갑은 구가호가 켜다.

특히 이날 키퍼 구가호의 활약이 인상깊었다. 경기 9분경, 심수청상이 먼거리 프리킥 기회를 리용해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를 선방으로 처냈는가 하면 13분경에는 상대팀의 문전 프리킥 골을 정확하게 방향을 포착해 잡아냈다. 후반전에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52분경에 상대팀이 코너킥을 통해 시도한 헤딩골을 거둬들였고 이어 54분경에는 1대1 쏠을 몸을 던져 막아내며 수차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연변팀도 절호의 득점 기회가 있었다. 62분경 연변팀은 중앙에서 공격을 발동해 왼쪽 측면으로 연결한 후 다시 측면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던 리석민에게 갈갈은 패스를 내줬다. 수비수까지 따돌린 리석민은 키퍼와 1대1 상황이 되었고 이대로 선제골이 터지나 싶던 순간, 공이 골대를 비껴가며 무한한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두 팀 모두 정규시간 안에 득점포를 터뜨리지 못한 채 승부차기를 이어갔다. 1번으로 나선 두 팀의 주자가 나란히 성공한 가운데 연변팀의

두번째 주자가 실축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심수청상의 4번째 득점이 구가호의 선방에 막히며 연변팀은 분위기를 다시 돌렸다.

이후 두 팀은 주거나 받거나 연속적인 득점을 이어갔고 승부차기는 9라운드까지 갔다. 연변팀의 9번 주자가 먼저 득점에 성공하면서 한숨 돌리는 사이 심수청상의 9번 주자가 찬 공이 높이 뜨면서 실축이 나왔다. 이로써 긴 각축 끝에 연변팀은 8대7로 승부를 가져오며 축구협회컵 제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한편 연변팀의 축구협회컵 제 3라운드 상대는 슈퍼리그팀인 청도서해안이다. 경기 일정표를 보면 5월 20일로 잠정되어있는데 청도서해안과 홈장에서 격돌한다. 만약 축구협회컵 경기가 이 날짜대로 진행된다면 일단 연변팀은 5월 17일에 중경동량룡과의 제 9라운드 리그 원정경기가 있다.

리그와 축구협회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변팀이 선수 구성을 어떻게 준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기해기자